한국 9명, 중국 7명…일본·대만 '전멸'

■'LG배 세계기왕전 통합예선' 본선 진출자 16명 가려져

한국팀 시드 7명 등 32강에 16명 진출…이민진은 중국벽 막혀 탈락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이하 LG배)이 한국의 집안 잔치가 됐다. 32강이 격돌하는 본선 무대에 한국은 절반인 16명이 진출했다. 한국기원은 3일 "이 대회 본선에 시드(7명), 통합예선전(9명) 등을 통해 모두 16명이 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막을 내린 통합예선전에서 초반 중국기사들에게 연달아 패했던 한국은 막판에 박정상 9단의 승리를 시작으로 최기훈 초단, 김형우 2단, 강동윤 7단이 모두 이기면서 9명의 기사가 본선행을 결정지었다.

이로써 한국은 시드 진출자 이세돌·이창호·박영훈·목진석·조한승·원성진 9단, 한상훈 3단 등 7명과 통합예선전을 통해 박정상, 최철한 9단, 백홍석 6단, 강동윤, 김형환 4단, 김지석 4단, 김형우, 최기훈, 김승재 초단 등 9명이 본선 무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아마 기사 최초로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현찬 아마 6단은 중국의 왕레이 8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민진 5단도 중국의 왕야오 5단에 무릎을 꿇었다.

중국은 신예기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준결승에서 천야오예 9단을 잡았던 뤄지아시 3단은 류재형 7단마저 잡고 본선진출을 확정지었다. 왕타오 2단은 한국의 막강 신예인 허영호 6단을 꺾었다. 국내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에 4단도 저우루이양 5단을 물리치며 본선에 합류했다.

통합예선에서 일본·대만 프로기사들은 모두 탈락했다. 일본은 LG배가 통합예선전을 실시한 지난 10회(2005년) 대회부터 매년 1~2명의 본선 진출자를 배출했으나 이번에는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했다. 일본은 세계대회 첫 통합예선인 제6회 삼성화재배 통합예선에서 23명이 출전해 3명의 본선진출자를 낸 이후 줄곧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LG배와 삼성화재배를 통틀어 쑤야오궈 8단과 황이주 7단이 2차례 본선진출에 성공했을 뿐 대만과 마찬가지로 거의 참가에 의미를 두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만은 천스위엔 7단, 유경민 6단 등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LG배 대권에 도전했지만 빈손으로 귀국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이하 LG배) 본선 무대에 한국 선수 16명이 진출해 우승을 노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막을 내린 통합예선전에서 박정상 9단(왼쪽)이 일본의 하나타카 호시요부 초단을 물리치는 모습. 〈사이버 오로 제공〉

이어지는 LG배 본선 32강은 26일 강원도 인제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 초읽기 1분 5회. 결승전은 3번기로 열리며 상금은 우승 2억5천만원, 준우승 8천만원이다. 지난 대회 우승자는 이세돌 9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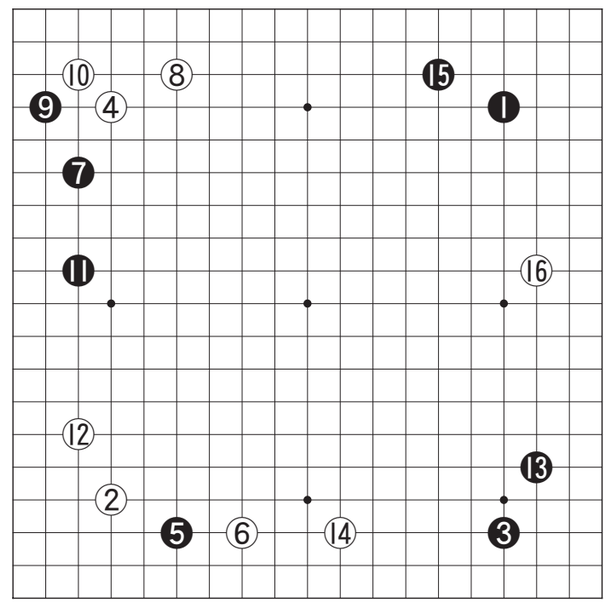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4회 전남도지사배 전국아마최강전 시니어부 본선 2회전

구례의 바둑 큰잔치

1보(1~16)

白 박성균 7단 (강원)　　黑 심재욱 6단 (광주)



벚꽃과 진달래가 만개한 지난 4월19일부터 양일간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전남지역 최대의 바둑행사인 전남도지사배 바둑대회가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각급 기관장 및 관계자와 참가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어언 4년째로 이지역의 바둑활성화와 저변확대는 물론이고 꿈나무 육성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대규모의 바둑잔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 대회는 전년 영암대회 때부터 전국아마 최강전을 동시에 개최하여 전국의 기라성같은 아마강자들이 대거 출동하여 바둑활성화는 물론이고 이고장 알리기에도 효과만점이어서 톡톡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바둑은 최강전 시니어부의 본선리그 2회전으로, 광주의 대표기사인 심재욱 6단과 현재 강원도에서 바둑 보급활동을 하고 있는 역전의 강호 박성균 7단의 대결을 소개한다.

최강전은 주니어부와 시니어부로 나눠 스위스리그를 벌여 전승자끼리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스위스리그라고는 하지만 한 판만 지면 순위가 확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토너먼트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

2회전에서는 이지역의 최강이자 우승후보인 조민수 7단이 대구의 이학용 7단에게 패해 사실상 우승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인 심재욱 6단에게 응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지난 2003년 '충암사단'의 300단 돌파 기념식 장면.

'충암 사단' 500단 돌파

바둑계의 대표적인 사단인 '충암사단'이 500단을 돌파했다.

'충암사단'은 서울 충암초, 충암중, 충암여중, 충암고교 출신 프로기사들의 모임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학교 바둑부를 창설한 '충암사단'은 1973년 정수현 9단이 입단하며 첫 프로기사를 배출했었다.

이후 1993년 100단, 2003년 300단, 2007년 11월 유재성·진동규 4단의 승단에 이어 최근 박정근·한상훈 3단의 동반 승단으로 드디어 500단을 넘어선 것이다.

'충암사단'은 허장회·이창호·유창혁·조한승 등 9단 프로기사만 20명에 이르며 조혜연 7단, 김혜민 4단 등 많은 여류기사들도 배출했다.

올 4월에는 한웅규 초단이 입단, 100번째 동문 프로기사를 배출했다. 현재 한국기원 프로기사는 229명으로 두 명 중 한명은 충암 출신인 셈이다.

한편 '충암사단'은 오는 1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500단 돌파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창호·박정상 이어 조훈현마저도…

한국바둑리그 광주 KIXX, 한게임에 2-3 역전패 꼴찌 추락

광주 Kixx가 KB국민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 꼴찌로 추락했다. 광주는 한게임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 먼저 2판을 이기고도 2-3으로 역전패 했다.

특히 광주는 이창호 9단 등 팀의 주축 선수들의 부진이 두드러져 우승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광주 이창호는 지난 27일 한게임의 홍성지 6단에게 290수 끝에 3집반 차로 패했다. 이창호는 승부를 결정짓는 세 차례의 패 싸움에서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실수를 범했다.

광주의 4번째 주자였던 박정상 9단은 김주호 7단에 불계패 당했고, 마지막 주자 조훈현 9단은 이영구에게 4집반 차로 아깝게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광주는 30일 현재 2패(개인승수 4승)만을 기록, 최하위인 8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 제한시간은 5판 가운데 한 판은 1시간30분, 30초 초읽기 5회로 치러지며, 나머지 네 판은 제한시간 없이 30초 초읽기 10회의 초속기 대국으로 펼쳐진다.

팀 순위는 승률, 개인승수, 승자 승의 순서로 따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주서 '이창호배 바둑대회' 열린다

10~11일 전주배드민턴장

일반·여성부 4개부문 열전

바둑 황제 이창호의 고향 전주에서 전국 아마바둑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0~11일 덕진구 덕진동 전주배드민턴장에서 제10회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선수권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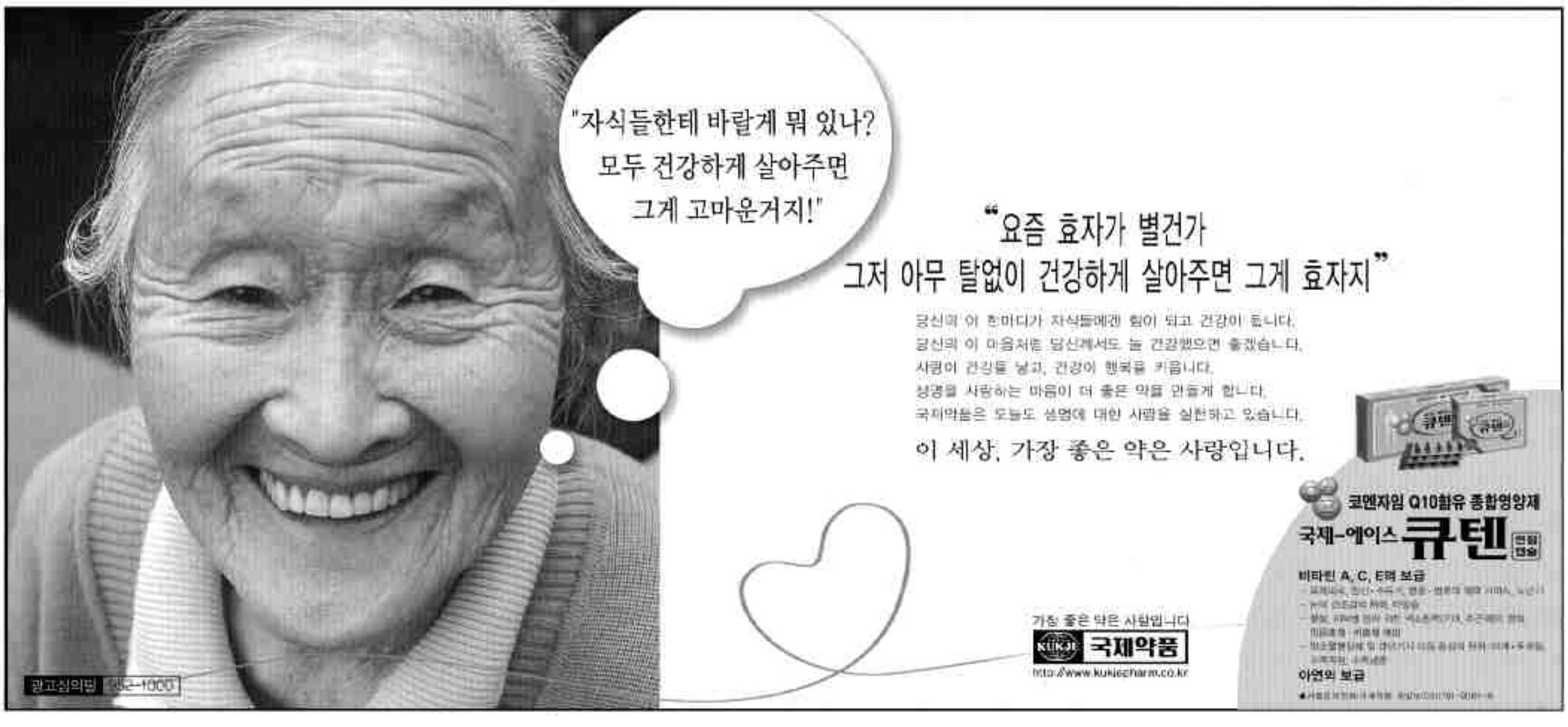
이창호 선수를 후원하는 고향 팬들의 모임인 '이창호 사랑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일반부, 여성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이창호는 대회 기간 참가자들을 상대로 다면기 지도를 한다. 문의 063-284-330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社 告

光日盃 직장 바둑대회 내일 열립니다

■일 시 : 2008년 5월 4일(일) 오전 10시
■장 소 :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시 상 :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주최 : 光州日報社　후원 : 광주시바둑협회
협찬 :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